

당뇨 여성에서 농뇨의 유병률 및 관련 인자들

오은혜, 김주영, 임열리, 박진호, 박민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당뇨 환자에서 요로감염은 비교적 흔하며 또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요로감염의 위험인자로 추정되는 무증상 세균뇨, 농뇨의 발현율이 당뇨 환자, 특히 여성에서 정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가 각국에서 보고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형 당뇨 여성의 농뇨 발현율이 정상인과 비교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농뇨를 유발하는 다른 관련 인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서울시내 일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40세에서부터 75세까지의 신, 요로계 이상이 없는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당뇨 환자군과 정상군에서 농뇨의 유병률을 구하고 나이, 비만, 당화혈색소(HbA1C),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농뇨 유발 가능 인자들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총 4148명 중 당뇨군 266명, 정상군은 3882명이었다. 당뇨군에서 농뇨율은 12.8%로 정상군의 8.2%에 비해 유의하게 당뇨군의 농뇨 발현율이 높았다($P=0.01$). 농뇨 발현에 영향을 주는 걸로 추정되는 기타 변수 중 나이, 비만(BMI), 당화혈색소(HbA1C),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대한 두 군간 비교에서 당뇨군에서 이런 인자들이 유의하게 높은 수치, 동반율을 보였으나 농뇨 발현에 직접적인 관련 인자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결론: 2형 당뇨 여성이 정상여성에 비해 무증상적 농뇨를 보이는 경향이 높음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뇨 여성의 무증상적 농뇨가 증상유발 요로 감염으로 이행하고 재발을 거쳐 장기적인 신, 요로 합병증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가 앞으로 계획되어져야겠다.

중심단어: 당뇨 여성, 요로 감염, 세균뇨, 농뇨 발현률